

제24회
생글논술경시대회
해제 및 예시답안

고2 인문 유형

한국경제신문이 만드는

생글생글 

1. 출제의도

한국을 찾는 외국인들이 가장 먼저 배우는 말이 ‘빨리 빨리!’ 라고 한다. 빠른 속도를 중시하는 한국인의 품성의 기원이 언제부터인지는 모르지만 세계 그 어느 나라보다 변화의 속도가 빠른 사회인 것만은 틀림없다. 물론 이런 빠른 속도가 한국의 경제성장에 일조한 바도 부정할 수 없다. 그러나 빠른 속도보다 중요한 게 분명 존재한다. 빠르게 가는 게 능사는 아닌 것이다. 경제성장, 물질적 풍요를 위해 효율성과 생산성을 추구하며 ‘빠름’을 지향해 온 현대인의 삶이 행복과는 거리가 멀었음을 인식하는 사람들이 증가하고 있다. 최근 한국사회에서도 ‘슬로우 라이프(slow life)’를 추구하며 자신의 삶에 집중하는 사람들이 증가하고 있다. 도시의 바쁜 생활에서 벗어나 한적한 농촌의 삶을 선택하는 사람들도 증가 추세이다. 이러한 변화의 기저에는 빠른 사회변화가 무엇을, 누구를 위한 것인가에 대한 의문이 존재한다. 빠르게 변하는 사회에 대응하기 급급하다 정작 중요한 자기자신을 상실하고 있는 것은 아닌가에 대한 의문 말이다. 이러한 의문은 현대의 속도문제를 어떻게 해야 하는가를 생각해보게 한다.

2. 제시문 분석

(가)

현대 사회는 속도가 숭배되는 사회이다. 무한경쟁 시대에는 속도가 경쟁력이다. 속도의 시대이고 속도가 모든 것을 결정하고 변화시키고 있다. 실제 컴퓨터와 인터넷은 인간의 사고와 생활양식을 급속도로 바꾸고 있다. 앞으로 디지털 기술은 더욱 놀라운 속도혁명을 일으킬 것이다. 속도의 물결에 앞장서면 승리하지만 이탈하면 낙오자가 되기 일쑤이다.

제이 그리피스(Jay Griffiths)는 ‘시계 밖의 시간’에서 ‘비록 걸로 드러나지 않지만, 현대에 이르러 시간의 묘사방식마저 철저하게 이데올로기적’이라고 지적했다. 시간이라는 개념에 사회의 지배적인 가치관이나 사상을 담고 있다는 것이다. 이미 우리는 인간의 ‘시간’이 아니라 기계의 시간, 즉 ‘시계’에 지배당한 삶을 살고 있다. 그래서 사람들은 휴일이면 도시를 떠나 시간이 더 많이 존재하는 곳을 찾아간다. 자연이 시간으로 충만해 있는 반면, 도시는 시계로 넘쳐나기 때문이다.

우리는 이런 각박한 분위기에 휘둘리며 너무 앞만 보며 달리고 있다. 더욱이 신자유주의에 기초한 세계화는 무한경쟁을 무기로 삼는다. 때문에 기업은 엄청난 경쟁력을 요구당하고 그들 기업에서 일하는 사람들도 이를 뒷받침하기 위해 바쁘게 움직일 수밖에 없다. 더 나은 제품을, 더 빨리 만들어서, 더 빨리 돈을 벌어야만 살아남을 수 있는 것이 오늘날의 세상이다. 빠름이야말로 경쟁력의 원천이기 때문이다. 특히 정보화 사회의 경쟁력은 곧 속도이고 그 속도에 적응하는 자만이 이 사회를 이끌어 나갈 수 있다.

제시문 (가)는 빠름, 속도가 곧 경쟁력이며 이러한 경쟁력을 갖추어야 사회에서 살아남을 수 있다는 글이다. 지은이는 이러한 속도가 기술문명에 의해 인간의 삶이 지배되었음을 보여준다는 것을 인지하고 있다. 그렇지만 오늘날의 정보화 사회, 디지털 기술, 신자유주의 하에서는 이러한 속도에 적응해야 살아남을 수 있다는 것을 강조하고 있다.

(나)

속도는 기술 혁명이 인간에게 선사한 엑스터시의 형태이다. 오토바이 운전자와는 달리, 뛰어가는 사람은 언제나 자신의 육체 속에 있으며, 끊임없이 자신의 물질들, 가쁜 호흡을 생각할 수밖에 없다. 뛰고 있을 때 그는 자신의 체중, 자신의 나이를 느끼며, 그 어느 때보다도 더 자신과 자기 인생의 시간을 의식한다. 인간이 기계에 속도의 능력을 위임하고 나자 모든 게 변한다. 이때부터, 그의 고유한 육체는 관심 밖에 있게 되고 그는 비신체적, 비물질적 속도, 순수한 속도, 속도 그 자체, 속도 엑스터시에 몰입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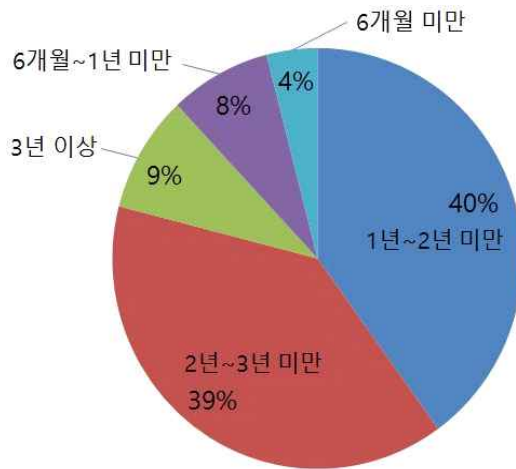
(중략)

어찌하여 느낌의 즐거움은 사라져버렸는가? 아, 어디에 있는가, 옛날의 그 한량들은? 민요들 속의 그 게으른 주인공들, 이 방앗간 저 방앗간을 어슬렁거리며 충충한 별 아래 잠자던 그 방랑객들은? 시골길, 초원, 숲속의 빈터, 자연과 더불어 사라져버렸는가? 한 체크 격언은 그들의 그 고요한 한가로움을 하나의 은유로써 이렇게 정의하고 있다. 그들은 신의 창(窓)들을 관조하고 있다고. 신의 창들을 관조하는 자는 따분하지 않다, 그는 행복하다. 우리 세계에서, 이 한가로움은 빈둥거림으로 변질되었는데, 이는 성격이 전혀 다른 것이다. 빈둥거리는 자는, 낙심한 자요, 따분해하며, 자기에게 결여된 움직임을 끊임없이 찾고 있는 사람이다.

☞ 제시문 (나)는 밀란 쿤데라의 <느림>에서 발췌하였다. 이 글에서는 기계문명의 속도가 현대인의 인간성을 상실하게 했음을 지적하며 느림을 추구한다. 속도는 몸을 잊게 하고 자신이 누구인지 잊게 하여 인간성을 상실케 한다. 기계문명의 속도, 자본주의의 급속한 발전은 마약처럼 정신을 잃게 만든다는 것이다. 반면에 자신의 육체로 뛰어가며 만들어내는 속도는 기계문명의 속도처럼 빠르지 않지만 몸이 있다는 것, 자신이 누구인지를 알게 한다. 이러한 느림이야말로 자신을 행복하게 하는 것이다.

(다)

<표 1> 한국 스마트폰 교체 주기에 대한 설문 조사 결과



출처: 월간 앱스토리

<표 2> 국가별 평균 스마트폰 교체 주기 (단위: 개월)

	미국	중국	프랑스	독일	영국	이탈리아	스페인	유럽5개국 평균
2016년	22.7	20.2	22.2	20.3	23.4	21.6	20.5	21.6
2015년	21.6	19.5	21.6	18.8	23.5	17.7	20.2	20.4
2014년	20.9	21.8	19.4	18.2	22.0	18.7	18.2	19.5
2013년	20.5	18.6	18.0	17.1	20.0	18.6	16.6	18.3

※ 유럽 5개국: 프랑스·독일·영국·이탈리아·스페인

출처: 칸타월드패널 보고서 'An Incredible Decade for The Smartphone: What's Next?'

☞ 제시문 (다)는 국가별 스마트폰 교체주기를 보여주는 표로 구성되었다. 먼저 <표1>에서는 한국의 스마트폰 교체주기가 대체로 1~3년 미만이라는 것을 보여준다. 좀 더 자세하게 살펴보면 1년~2년 미만이 40%, 2년~3년 미만이 39%로 전체 중 79%가 3년 이내에 스마트폰을 교체한다. <표2>에서는 각 국가별 스마트폰 교체 주기가

증가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각 국가별로 약간의 차이가 있으나 2013년에서 2016년으로 갈수록 그 주기는 증가하고 있음을 공통적으로 보이고 있다. 2013년에는 평균 18.3개월에 스마트폰을 교체하였지만 2016년에는 21.6개월로 약 3개월 정도 늦어졌음을 알 수 있다. 그런데 <표 2>에서 스마트폰 교체시기가 느려졌지만 2년 이내라는 것도 알 수 있는데 이는 스마트폰 교체시기가 2년~3년 미만이 조사대상 중 39%라는 한국의 조사결과와 비교하면 빠른 편에 속한다. 빠름과 느림은 상대적으로 인식되는 속도라는 데 주목하여 최대한 상세하게 읽어 내야 한다.

(라)

우리는 유독 낡은 것들을 보수하기보다 부수고 새로운 것을 짓는 것을 선호한다. 선진국의 경우 도심의 보존을 위해 재건축에 상당한 제한을 가한다. 그렇다고 유럽인들이 불편한 집에서 살고 있는 것은 아니다. 걸모습은 예전 그대로의 모습을 간직하고 있지만 내부는 현대화된 우리들의 집과 크게 다름이 없게 리모델링돼 있다.

예전 모습 그대로를 간직 한 채 도시는 발전해 왔다. 시간이 흐를수록 도시 자체가 그대로 유적지화 되면서 전 세계에서 관광객이 모여들고 있다. 우리는 지방도 크게 다르지 않다. 이미 우리 전통 가옥들은 이미 사라진지 오래다. 붉거나 푸른 양철 지붕이 시골 풍경을 대체했고, 흙으로 지은 전통가옥들은 이제 민속촌에서만 볼 수 있을 뿐이다.

또 수도권, 지방할 것 없이 지자체의 청사들도 몇 년 전 재건축 바람이 불어 그마저도 다시 새로 지어졌다. 우리는 이미 부수고 새로 짓는 것에 너무 익숙한 것은 아닐까. 서울은 스카이라인조차 계속 바뀌고 있다. 산과 도시가 조화롭게 어우러져 있는 서울은 세계에서조차 찾기 힘든 아름다운 도시였다. 하지만 지금도 지어지고 있는 초고층 건물들이 스카이라인을 바꾸고 있다. 주로 중동의 개발도상국가들에서나 볼 수 있는 이 같은 모습은 지금도 서울 한복판에서 벌어지고 있다.

서울에서 부취진 대표적인 예는 바로 지금은 사라진 동대문 운동장을 들 수 있다. 근대스포츠 발전과 정치활동의 장소로 수십 년 동안 자리를 지켜왔던 동대문운동장은 한순간에 철거되고 그 자리에는 동대문디자인플라자가 들어섰다. 이에 스페인의 알함브라(Alhambra) 궁전은 우리에게 많은 시사점을 던져준다. 스페인은 아프리카에서 올라온 이슬람인들의 지배를 받은 역사가 있다. 이후 스페인에서 이슬람인들이 물러가고 나서 이슬람문화의 흔적들은 어떻게 됐을까?

스페인인들은 그들의 흔적을 있는 그대로 보존했다. 대표적으로 현존하는 이슬람 궁전 가운데 가장 아름다운 궁전으로 평가되며, 이슬람 건축의 최고 걸작으로 꼽히고 있는 스페인 알함브라(Alhambra) 궁전은 그 모습 그대로 세계적인 관광지가 됐다. 이슬람 왕조가 멸망했음에도 역사를 있는 그대로 보존한 스페인. 어떤 꾸밈도 추가도 없었다. 있는 그대로의 모습 그대로 관광객을 맞이하고 있다. 모든 역사의 내용은 그 자체로 스토리가 됐다. 우리는 있는 그대로의 모습보다 감추고 치장하고 꾸미는데 너무 익숙한 것은 아닐까.

☞ 제시문 (라)는 신문기사 중 일부이다. 우리나라가 유럽과 달리 역사를 있는 그대로 보존하지 못하고 바꾸는 데 혈안이 되어 있음을 안타깝게 생각하고 있다. 역사를 있는 그대로 보존하여 세계적인 관광지가 된 스페인의 알함브라 궁전을 예로 들면서 우리나라가 전통가옥을 부수고 초고층 건물로 대체하면서 한국의 고유함을 상실하였음을 지적한다. 재건축, 개발에 열을 올리며 전통은 민속촌에 가두어 전시물로 전락시킨 것이다. 따라서 제시문 (라)는 있는 그대로의 모습을 감추고 새롭게 만드는 것에 익숙한 한국의 도시개발을 비판하는 글로 읽어내면 된다.

한편, 통합논술에서는 개별 제시문의 논지를 전체 주제의식을 바탕으로 분석하는 게 중요하다. 제시문 (라)의 논지는 전통의 상실, 한국의 고유함의 부재에 대한 안타까움이지만 이를 다른 제시문의 논지와 연관시킬 수 있는 내용으로 재구성해야 하므로 ‘전통 = 느림, 한국의 고유함 = 느림, 새로움 = 빠름’으로 연결시켜 파악하는 데까지 나아가야 한다.

3. 논제 분석 및 답안작성 방향

문항 1 제시문 (가)와 (나)를 이용하여 (다)의 표를 분석하라. (400~600자/40점)

제시문 (가)와 (나)의 논지를 이용하여 (다)의 표의 의미를 도출하는 문제이다. 수시 논술전형을 치르는 거의 모든 대학에서 도표나 그래프를 분석, 해석하는 문항이 출제되고 있기 때문에 이번 생글논술경시대회 인문 고2 유형에서 다뤄보고자 하였다. 그러나 고2임을 감안하여 자료내용은 어렵지 않게 구성하여 학생들이 쉽게 파악할 수 있게 하였다. 자료를 볼 때에는 자료의 제목을 확인하고 활용해야 하는 제시문의 내용을 토대로 숫자와 흐름을 꼼꼼하게 살펴야 한다.

논제의 요구에 맞는 답안을 작성하기 위해서는 먼저 제시문 (다)의 표를 객관적으로 읽어내는 게 우선되어야 한다. 논제의 요구가 (다)의 표를 분석하라는 것이므로 자료분석이 먼저 제대로 되어야 하는 것이다. 물론 이 자료의 의미를 해석할 때 제시문 (가), (나)의 핵심내용과의 논리적 연관성을 파악해내는 것도 논제의 요구이므로 중요하게 반영되어야 하지만 답안의 주인공은 (다)의 자료임을 명확하게 인지하는 차원에서 (다)분석에 주목하는 게 효과적이다.

<표1>에서는 한국의 스마트폰 교체주기가 대체로 1~3년 미만이라는 것을 보여준다. 좀 더 자세하게 살펴보면 1년~2년 미만이 40%, 2년~3년 미만이 39%로 전체 중 79%가 3년 이내에 스마트폰을 교체한다. <표2>에서는 각 국가별 스마트폰 교체 주기가 증가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각 국가별로 약간의 차이가 있으나 2013년에서 2016년으로 갈수록 그 주기는 증가하고 있음을 공통적으로 보이고 있다. 2013년에는 평균 18.3개월에 스마트폰을 교체하였지만 2016년에는 21.6개월로 약 3개월 정도 늦어졌음을 알 수 있다. 두 표를 보면 한국역시 세계 각국의 스마트폰 교체주기가 비슷함을 알 수 있다. 다만 여기서는 한국의 경우, 조사대상의 약 80%가 스마트폰을 3년 이내 교체한다는 것, 2년~3년 미만이 39%라는 점에 주목할 수 있다. <표2>에서 각국은 스마트폰 교체주기가 느려지고 있으며 평균 21.6개월 즉, 2년 미만이다. 이는 조사대상의 39%가 2년 이상 3년 미만이라는 한국의 수치와 비교할 때 교체주기가 더 빠르다고 할 수 있다. 이는 <표2>의 국가들과 한국을 비교하는 지점이기도 하다.

자료를 객관적으로 세심하게 읽어냈다면 제시문(가), (나)의 논지를 토대로 자료의 의미를 도출해내야 한다.

먼저 제시문 (가)는 빠름, 속도가 곧 경쟁력이며 이러한 경쟁력을 갖추어야 사회에서 살아남을 수 있다는 글이다. 속도는 기술문명에 의해 인간의 삶이 지배되었음을 보여주지만 오늘날의 정보화 사회, 디지털 기술, 신자유주의 하에서는 이러한 속도에 적응해야 한다는 것을 강조하고 있다. 이러한 입장에서 제시문 (다)의 자료는 여러 가지 측면에서 분석될 수 있다.

첫째, 스마트폰 교체 주기가 전체적으로 2~3년이라는 데 주목할 때, 2~3년이 빠름에 해당하는지 느림에 해당하는지에 대해 다르게 읽혀질 수 있다. 빠르냐 느리냐는 상대적인 개념이기 때문이다. 이러한 속도의 개념까지 고려한 분석이 가능하다면 개념이해가 정확하다는 점에서 높은 점수를 받을 수 있다. 만약 스마트폰 교체 주기 2~3년 미만을 ‘빠름’으로 해석한다면, 이는 (가)의 논지를 이용하여 경쟁력을 갖추기 위한 선택이었다고 의미 분석할 수 있다. 정보화 사회에서 스마트폰의 교체주기는 새로운 기술혁명에 대응하였음을 시사할 수 있기 때문이다. 반면에 ‘느림’으로 해석하더라도 이는 정보화 사회, 디지털 기술의 속도에 적응하는 모습으로 이해할 수 있다. 현대기술문명의 속도는 곧 경쟁력을 의미하며 이에 적응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가)의 내용에 의하면 스마트폰 교체주기는 곧 기술혁신의 속도와 일치한다고도 볼 수 있기 때문이다.

둘째, <표2>에서 각국의 스마트폰 교체주기가 점차 증가하고 있다는 것 즉, 느려지는 현상이 의미하는 바는 정보화 사회, 디지털 기술의 속도변화에 뒤처지는 모습이라고 할 수 있다. 속도는 기술문명에 의해 인간의 삶이 지배되었음을 보여준다는 점에서 이러한 현상은 인간이 기술문명으로부터 독립성을 추구하는 모습으로도 읽혀진다.

셋째, 한국이 다른 나라들과 마찬가지로 스마트폰 교체주기가 2~3년 미만이지만 2년 이상 3년 미만이 39%로 <표2>의 국가들의 교체주기보다 느린 모습 또한 보여준다는 데 주목할 수 있다. 이러한 현상이 의미하는 바를

도출해내기 위해서는 한국이 다른 사회보다 디지털 문명이 발달된 사회라는 점을 고려할 줄 알아야 한다. 즉, 디지털 문명의 빠른 변화 속에서 인간의 삶이 기술문명에 의해 지배되는 정도가 다른 사회보다 컸다는 점에 주목하면, 그에 대한 반작용으로 다른 사회보다 기술문명으로부터 독립하고자 하는 움직임 역시 더 클 수 있다는 것도 도출할 수 있는 것이다. 스마트폰 교체주기가 느려진다는 것은 (가)의 논지로 볼 때 경쟁력을 저하하는 현상이지만 이는 기술문명으로부터 독립하고자 하는 인간의 모습을 의미하기 때문이다.

다음으로 제시문 (나)는 기계문명의 속도가 현대인의 인간성을 상실하게 했음을 지적하며 느림을 추구한다. 기계문명의 속도, 자본주의의 급속한 발전은 몸을 잊게 하고 자신이 누구인지 잊게 하여 인간성을 상실케 하지만 자신의 육체로 뛰어가며 만들어내는 속도는 느리지만 몸이 있다는 것, 자신이 누구인지를 알게 하며 인간을 행복하게 한다고 생각한다. 이러한 관점에서 스마트폰 교체주기가 빠르다는 것은 부정적으로 해석될 수밖에 없다. 따라서 (다)의 도표에서 스마트폰 교체주기가 대체로 2년~3년 미만이라는 것을 ‘빠름’으로 이해한다면 이는 인간성의 상실 속도가 그만큼 증가한다는 것, 행복과는 거리가 먼 행동이라고 분석되지만 ‘느림’으로 이해한다면 기계문명의 발전 속에서 자신이 누구인지 생각하며 행복을 추구하고자 하는 현상이 증가하고 있다고 분석될 수 있다.

또한 <표2>에서 각국의 스마트폰 교체주기가 점차 증가하고 있다는 것 즉, 느려지는 현상이 의미하는 바를 긍정적으로 분석할 수 있다. 느림의 지향으로 인간성을 회복하고자 하는 모습으로 읽을 수 있는 것이다. 마찬가지로 한국이 다른 나라들과 마찬가지로 스마트폰 교체주기가 2~3년 미만이지만 2년 이상 3년 미만이 39%로 <표2>의 국가들의 교체주기보다 느린 모습 또한 긍정적으로 해석된다. (가)를 이용한 분석에서와 마찬가지로 한국이 다른 사회보다 디지털 문명의 발전 속도가 빠른 사회임을 고려하여 다른 국가보다 느림에 대한 지향이 큰 것이라고 해석할 수 있다.

문항 2. 모든 제시문들을 활용하여 (라)글의 견해에 대한 자신의 입장을 논술하시오. (800~10,00자/ 60점)

문항 2에서는 (라)의 논제에 대한 견해서술을 요구하고 있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두 가지 사고가 동시에 이루어져야 한다. 대상에 대해 찬성할 것인지 혹은 반대할 것인지를 결정한 후 이 결정을 토대로 자신의 선택을 어떻게 정당화할 것인지를 선택해야 한다. 이때 (라)에서 주제에 대한 인식, 핵심쟁점이 무엇인지 정리하고 이에 대한 자신의 결정, 선택, 견해를 정당화할 수 있는 논리적 근거를 제시하는 것이 중요하다.

(라)는 우리나라가 유럽과 달리 역사를 있는 그대로 보존하지 못하고 바꾸는 데 혈안이 되어 있음을 안타깝게 생각하고 있다. 역사를 있는 그대로 보존하여 세계적인 관광지가 된 스페인의 알함브라 궁전을 예로 들면서 우리나라가 전통가옥을 부수고 초고층 건물로 대체하면서 한국의 고유함을 상실하였음을 지적한다. 재건축, 개발에 열을 올리며 전통은 민속촌에 가두어 전시물로 전락시키고 있는 그대로의 모습을 감추고 새롭게 만드는 것에 익숙한 한국의 도시개발을 비판하고 있다. 이에 대한 견해를 서술할 때 제시문 (가), (나), (다)를 이용해야 하므로 전통의 상실, 새로운 것으로 개발하고 대체하는 현상을 속도와 연관지어 접근하는 것이 필요하다.

(라)의 논지를 파악했다면 이에 대해 찬성할 것인지 반대할 것인지를 결정하면 된다.

찬성하는 입장에서는 기계문명의 속도, 자본주의의 급속한 발전이 전통, 한국의 고유함을 상실케 한다고 지적할 수 있다. (라)의 필자가 한국이 재건축, 개발에 열을 올리며 전통을 민속촌에서만 볼 수 있게 하고 새롭게 만드는 것에만 익숙해졌다고 비판하는 것은 빠른 속도의 부정적인 모습과 맥락을 같이 한다. 따라서 (라)의 입장에 찬성하는 견해를 펼치기 위해서는 빠른 속도가 한국사회의 부정적인 모습에 어떻게 영향을 미쳤는가를 논리적으로 서술하는 게 중요하다. 이때 ‘모든 제시문을 이용’해야 한다. (가)의 경우에는 정보화 사회, 디지털 문명, 신자유주의 시대에 효율성과 경쟁력을 갖추기 위해 끊임없이 개발하고 새로움을 지향하는 과정에서 물질적인 풍요를 얻었을 수는 있지만 그로인한 전통의 상실, 정신적 가치에 대한 인식의

부제가 문제시되고 있다는 식으로 활용할 수 있다. (나)는 전통의 상실, 한국의 고유함이 사라진 것이 기술 문명의 속도에 의해 인간성이 상실되었기 때문이라는 식으로 서술가능하다. (다)의 표 역시 스마트폰 교체 주기가 느려지는 것이 기술문명의 빠른 변화 속도에서 벗어나고자 하는 사람들의 욕구의 반영이라는 식으로 활용될 수 있다.

반대하는 입장에서는 개발과 재건축, 옛것을 유지하기보다 새로운 것으로 바꾸는 것을 긍정하거나 어쩔 수 없는 선택임을 피력할 수 있다. 한국이 재건축과 개발에 열을 올리며 새롭게 만드는 것에 익숙해지는 것은 경쟁에서 살아남기 위한 어쩔 수 없는 선택 혹은 적극적인 대처라는 입장에서 (라)의 필자를 비판하는 논지를 전개하는 것이다. 이를 위해서는 (가)의 핵심논지를 적극적으로 활용할 필요가 있다. 오늘날과 같은 글로벌 시대, 신자유주의 시대에 한국이 경쟁력을 확보하기 위해 적극적인 변화와 혁신을 추구할 수밖에 없다는 식으로 활용가능하다. 그런데 기술 문명에의 적극적 대처를 부정적으로 생각하는 제시문 (나)를 있는 그대로 활용하는 것은 어려워 보인다. 논제의 요구조건이 ‘모든 제시문을 이용’ 하는 것이므로 제시문 (나)의 주장을 비판하는 방식으로 활용할 수밖에 없다. 제시문 (다) 역시 스마트폰 교체주기가 느려지는 것은 비판하는 식으로 활용해야 한다. 그게 아니라면 스마트폰 교체주기가 대체로 2년 이내로 빠른 편임에 주목하여 이는 급변하는 사회에 적극적으로 대처하는 능동적인 현상임을 강조하는 식으로 활용할 수 있다.